

선심성·보여주기식 행정 지양... 변화·혁신 바람일 듯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 도정 어떻게 바꿀까

F1·J프로젝트 등 부분적 수정·보완 불가피

‘이낙연호(鰲)’가 이끄는 전남도정은 그의 성품처럼 조용한 가운데서 부드러운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넓은 들과 산, 바다, 갯벌 등 천혜의 자원을 토대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신재생 에너지사업, 도민 복지 향상 사업 등은 중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3선의 박준영 지사가 역점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농업은 양적 확대에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4년을 이룰 이 당선인의 도정 철학은 ‘즐거움 변화를 위한 5대 도정혁신’에 그대로 담겨 있다.

새로운 전남을 창조하기 위해 도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도정혁신을 통해 전남의 변화를 이룰 생각이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공직자와 도민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도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정을 도민의 소리를 듣는 도민청(道民廳)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도지사 업무에 대한 정기적 평가도 눈에 거널 대목이다.

이 당선인은 국제대회 유치나 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잘잘못을 평가받겠다고 밝혀 ‘묻지마식’이나 ‘선심성,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은 상당 부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와 사업에 있어 철저한 ‘공정’을 강조한 대목은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얽히고설킨 인사나 사업 추진 등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기관장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출연·출자기관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농업은 내실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2015년이면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되는 것에 맞춰 농민들이 유기농, 무농약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농약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유기농 시대의 도래에 맞춰 도(道)농정국 등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장기적으로 관련 기구의 설립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올해 유치권료 협상 실패로 한해 건너뛴 포틀랜드(F1)국제자동차대회나 이른바 J프로젝트로 불리는 솔라시도 조성사업은 큰 틀에서 추진하되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크다.

연륙·연도교 조기 완공 및 항공, 광양제철과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은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SOC확충을 위한 건설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노선이 없는 벽오지 마을을 오가는 100원 택시 운행이나 버스(준)공영제 단계적 도입,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광역치매센터 유치 등도 역점사업으로 진행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와 부인 김숙희씨가 4일 밤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만세를 부르고 있다.

<당선자측 제공>

언론인 출신... DJ와 인연 정치 첫발 내디딘 ‘의리파’

이낙연은 누구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는 중견 언론인에서 4선의 중진 정치인으로 성공적인 정치인생을 이어온 인물로 이제는 전남도정을 책임지는 종합 행정가로 떠오르게 됐다.

영광의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는 그는 열렬한 야당 당원이었던 부친의 영향으로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과 정의감을 키우며 성장했다. 이 당선자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언론인의 삶을 이어가던 중 ‘동교동계’로 불리는 옛 민주당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정치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이 당선자는 “1989년부터 정치 입문을 권유받았으나 사양하다 2000년 16대 총선

때 고향 영광에서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대선 직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분당 때는 이른바 ‘꼬마 민주당’에 남아 ‘탄핵 역풍’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등 내리 4선을 했다. 조선 시절인 2001~2002년 두 차례의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2002년 대선 때 선대위 대변인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등 5차례에 걸쳐 ‘당의 입’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그는 대변인 시절 국회의원 선수(選數)보다 하나 더 많은 ‘5선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명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해학과 기지가 뛰어나며 날카로운 분석력과 기획력, 판단력이 돋보인

다는 평가를 받았다. 언론인 출신답게 깔끔한 문장력 등 필력이 뛰어나 대변인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작성에도 참여하곤 했다.

이 당선자는 정치권 안팎에서 자신과 주변의 관리에 철저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15년을 함께 한 보좌관이 있을 정도로 한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는 ‘의리파’로 통하고 보이지 않는 ‘잔정’도 있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좌우명은 근경원견(近聽遠見), 가까이 듣고 멀리 본다는 뜻으로 도민의 말씀은 가까이 듣고 그 말을 정책에 반영할 때는 멀리 보겠다고 이 당선자는 설명했다. 미술교사 출신인 부인 김숙희 여사와 정선과 수련의인 아들을 두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 2위... 역대 전남지사 최고 득표율 기록

이낙연 77.5% 득표

6·4 지방선거에서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는 77.5%의 득표율을 기록, 무투표 당선 경우를 제외한 역대 전남지사 선거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이기도 하다.

이 당선자는 40.5%를 개표한 5일 새벽 0시30분 현재 77.5% 득표율로 김관용 경북지사 당선자(79.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3위는 송하진 전북지사 당선자(69.8%)였다.

이 당선자는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번이 없는 한 개표완료시까지 77% 내외의 득표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가 이번에 기록한 득표율은 지난 1995년에 실시된 1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나온 당시 허경만 후보의 득표율 73.4%의 기록을 갱 것이다. 그동안 전남지사 선거는 보궐선거 한 차례를 포함해 이번까지 6번의 전남지사 선거가 치러졌다. 지난 1998년 치러진 2회 전남지사 선거에서는 허경만 후보가 단독 출마했으며 4~5회 지방선거에서는 박준영 지사가 60% 후반대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의 기록은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송연중 광주시장 후보가 기록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 89.8%는 미치지 못했다.

이 당선자가 각종 약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이 당선자

의 인물론과 각종 공약이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의 표심을 자극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 치열했던 경선 때부터 본선까지 이어진 선거 캠프 참모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끈끈한 팀워크가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경선이 끝나고 후보로 확정되면 본선에서 다소 느슨한 선거운동이 이뤄졌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 당선자가 선거 막판까지 바닥민심을 훑으면서 득표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전남을 따먹는 마음으로 선거는 저의 각오를 도민 여러분께서는 신뢰 해주었다”며 “당선 첫날의 마음이 임기 내내 이어지도록 제 자신을 채찍질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www.yonhapnews.co.kr

작년 국내외 이슈 담은
‘연합연감 2014년판’ 출간

지난해 국내외 이슈를 총 정리한 ‘연합연감 2014년판’이 발간됐습니다.

‘연합연감’은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해마다 펴내는 ‘사건사고 종합연감’으로서 올해는 140여 명의 필진이 참여해 2013년에 일어난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빠짐없이 수록했습니다.

분야별 뉴스와 현황, 일지, 연표와 함께 통계, 일람, 대통령 연설문,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 화제의 인물 및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분류한 역대 정부 기관장 등의 자료도 별도로 묶어서 담았습니다.

특히 북한 편에서는 2인자로 통하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과 처형 관련 자료를 비중 있게 수록했습니다. 3차 핵실험 강행과 대남 위협 등도 상세하게 짚었고 북한의 권력 기구, 최고인민회의 13기 대의원 명단 등도 실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편된 행정구역에 반영한 북한 시·도 지리와 고위급 주요 인물의 프로필, 남북 합의문, 북한 법률, 남북대표단 명단 등도 새롭게 소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각 분야별로 상세한 기사와 함께 관련 사진, 그래픽, 도표 등을 곁들여 면수를 늘려 참고자료로서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는데 2014년판 연감 편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 4×6배판 양장본, 총 1천328쪽
■ 가격 : 15만원

구입 문의 서울(02)398-3590~3 경기(031)238-2222 인천(032)427-1236 대전·충남(042)521-9705 광주(062)264-5777 청주(043)225-5005 강원(031)569-7788 전주(063)232-7652 경남(055)281-0010 부산·울산(051)441-7400 대구(053)355-3800